

#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3년 1월 뉴스레터 vol. 61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지인에게도 장례를 허하라

채우고 비우고 어느 지식인의 자기성찰

숫자로 보는 채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 90.6%

메멘토모리 애도 안내자

채비학교 [마음치유 프로그램] 상실에서 삶으로



## 지인에게도 장례를 허하라



작년부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위스테이지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 1인가구 모임 ‘비밀언덕’이 있다. 2022년 12월 22일 저녁, 3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10여 명의 사람이 동네 카페에 모였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조금 후에 서로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한 해 동안 사느라 수고했다고. ‘약방의 감초상: 비밀언덕 단독방에 이따금씩 참여하여 반가운 존재감을 알리고 있는 언덕님께 이 상을 드립니다.’ 비밀언덕 회원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재미나게 살고 있다. 이들은 다른 동아리나 마을 전체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돕는다.

나는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궁금해졌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얼마나 될까.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수 대비 33.4%, 총 가구 수로는 7백16만5천788가구라고 한다. 10가구 중에 서너 가구는 혼자 산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는 주요한 현상이자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이는 잠재적 1인 가구인 2인 가구 수까지 더하면 60%가 넘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래서인지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서비스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한겨레두레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다. 기존의 3일장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 사회의 인구와 가구 동향은 변화된 장례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물론 우리 조합은 선견지명을 가지고 ‘채비’라는 브랜드로 ‘작은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추세는 사업의 방향성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따라서 좀 더 명시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장례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인이 필요로 하는 장례서비스는 어떠한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약 225만원, 소비지출은 약 133만원이다.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소모임을 선호한다. 이에 맞추려면 장례비용과 서비스 형태를 재구성해야 한다. 비록 1인 가구이지만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많고, 혼자인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비밀언덕처럼 서로를 위한 생활 소모임이 ‘조문공동체’와 ‘애도 소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 같다. 한겨레두레는 앞으로 기존 3일장에 규모는 작고 비용은 절감한 1인 가구용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때마침 새해 1월에 보건복지부가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4가지 과제 중에 반가운 것은 3번째 ‘국가 책임 강화’와 4번째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이다. 국가 책임 강화에서 핵심은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장례를 복지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점이다. 복지의 완성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한다면 장례는 마땅히 복지의 종착점이다. 또한 혈연 중심의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장례주관자)’의 범위를 새해부터 확대한다니 더욱 반갑다.

지난 몇 해 동안 안타까운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자녀와 소식을 끊고 지내면서 본인 장례를 한겨레두레에 맡기려 했지만 진행할 수 없었다. 혈연관계가 아니면 장례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혈족관계만 인정하기에 그들이 장례를 포기하면 무연고자가 된다. 만일 정부방침대로 ‘혈연의 범위를 넘어서’도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위탁할 수 있다면 1인 가구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과제는 4번째 ‘사후(死後) 복지 선도사업 도입’의 검토이다. 이에 대해서 보도자료는 ‘(일본 지자체 사례) ‘엔딩 서포트(ending support) 사업’ :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지역민으로 일정 예탁금을 내면 지자체가 사후 장례, 주변 정리, 사망 신고 등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아직은 ‘검토’라고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도 못 치르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온 지인이 고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성년 후견인 제도에서 고인에 대한 사후(死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임종 전에 당사자가 장례비를 신탁하고 장례방식도 사전에 정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지인에게 장례를 맡길 수 있다. 임종돌봄 또는 임종복지는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의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다. 웰비긴(Well-Begin)에서 웰비잉(Well-Being)을 거쳐 웰엔딩(Well-Ending)으로 선순환하는 한국 사회를 꿈꾸는 것을 몽상(夢想)이라 할 수 있을까.\*

전승욱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부장, 채비추모장례플래너

\*전체 납입금 중 운영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 어느 지식인의 자기성찰



<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는 '나는 얼마나 다르냐?' 물음에서 출발한다.

조형근은 서문에 **“말하고 쓸수록 사실은 그런 내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글을 쓸 때면 정의를 찾게 된다. 그렇게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 내 삶이 글처럼 정의롭지 않다. 그 격차를 부끄럽게 고백하되, 그 사이 긴장과 모순을 잊지 않으려 애쓰는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한다.

<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의 지은이 조형근은 자신이 권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통증이 밀려왔다고 고백한다. 그는 경제사회학을 공부했고 일제시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9년에 칼럼 ‘대학을 떠나며’를 발표하며 정규직 교수를 사직해 화제를 일으켰다. 그는 나중에 “나는 지금의 대학에 부적합한 인물이었다. 업적 생산 경쟁과 세상을 향한 발언을 병행하기가 불가능했다”고 이유를 말했다. 그는 파주 교하에서 협동조합 서점과 지역연구소 ‘소셜랩 접경시대’에 근거지를 두고 집필과 강연에 전념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대학을 떠난 이후 3년여 동안 ‘동네 사회학자’로 활동하며 고민한 바를 담은 것이다. 그사이 우리 사회는 조국 사태, 코로나19 대유행, 대통령 선거 등 큰 사건들을 겪으며 균열과 갈등으로 나아갔다.

‘촛불정부’는 불평등과 약자 문제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세상을 바꾼 줄 알았던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대학은 점차 진리의 보루라는 권위를 잃어가고 있고 세대와 젠더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한 듯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찰은 무엇인가.

**“추운 날 광장을 메운 수백만의 촛불들 사이로, 아이들이 빛나는 촛불이 되어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벽치게 바뀐 세상이, 다른 이들에게는 여전히 고달프고 불평등한 저들의 세상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저만치 성큼성큼 선진국의 세계에 진입해 있다.”**

이 중산층에는 진보나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이들도 포함되었다. 그들은 지켜야 할 것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그 자리를 지키느라 열심히 경쟁하고, 자식들도 저처럼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권력과 부는 점점 더욱 단단하게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면서 대를 잇고 있다. 한때 세상을 바꾸려 했으나 어느새 ‘기득권’이 되어버린 진보 지식인 엘리트의 자화상을 돌아보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86세대’로 불리는 진보진영의 주역들은 20대 시절 독재와 자본에 맞서 세상을 바꾸려고 투쟁했지만, 민주화가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투쟁을 경쟁으로 대체했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1부는 오랫동안 대학에 몸담았던 지식인으로서 대학과 지식인의 역할을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오늘의 청년세대와 지난날의 청년세대에 대한 고민, 그들 사이의 불화에 대한 생각도 담아 보았다. 기득권이 된 86세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지나온 시대를 회고하며 지금 져야 할 책임을 묻기도 한다.

2부에는 민주주의를 갱신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 세월호 사건의 사회적 의미, 합리적 보수를 바라는 미망에 대한 경계. 주거빈민의 삶에 대한 고민, 촛불행동의 희망과 공정한 경쟁을 향한 욕망에 깃든 중산층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반성을 등을 담았다.

3부에는 다시 유토피아의 희망을 생각하고, ‘행복경제학’이라는 대안과 한계도 따져보았다. 왜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상상력이 문제인지, 이 모든 고민의 대상이자 주체인 민중과 소수자는 어떻게 만나야 할지도 고민했다.

세상 속에 내가 있고, 내가 걸어온 길이 세상이 되어 있다. 지은이는 세상을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이 세상을 비판하는 서론이면서 나를 성찰하는 고백록이 된 이유다.

지은이는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거나 미래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지 않을 것 같아 두려운 이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덧붙여 그는 “어느 것이나 부족하다. 시작해보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이렇게 글이 먼저 가서 내가 따라오길 기다리고 있다. 이 길로 가야 한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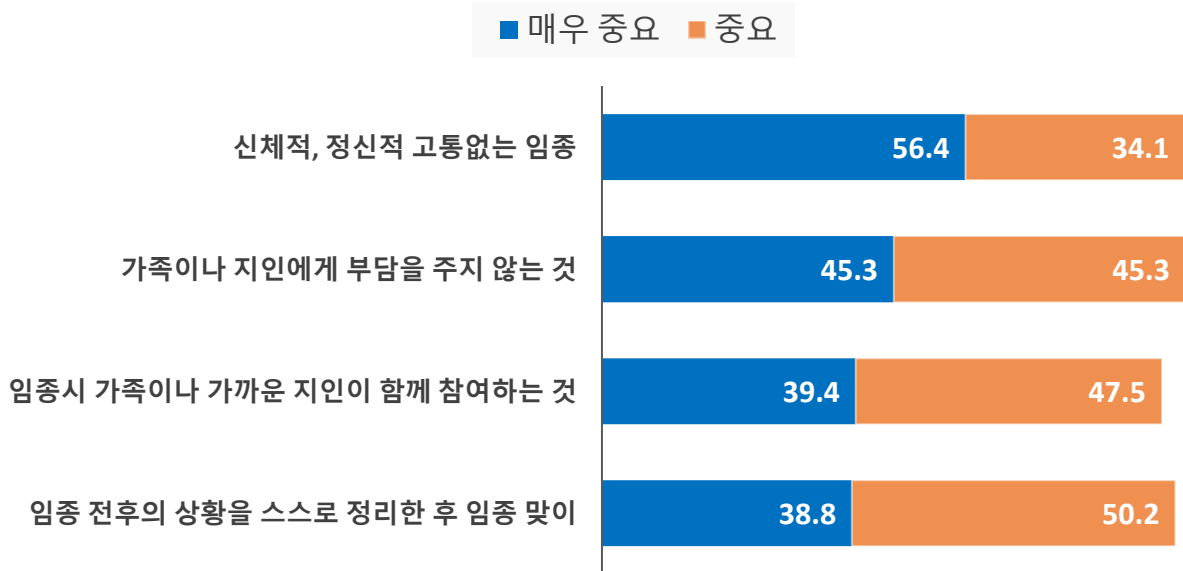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1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 90.6%

노인의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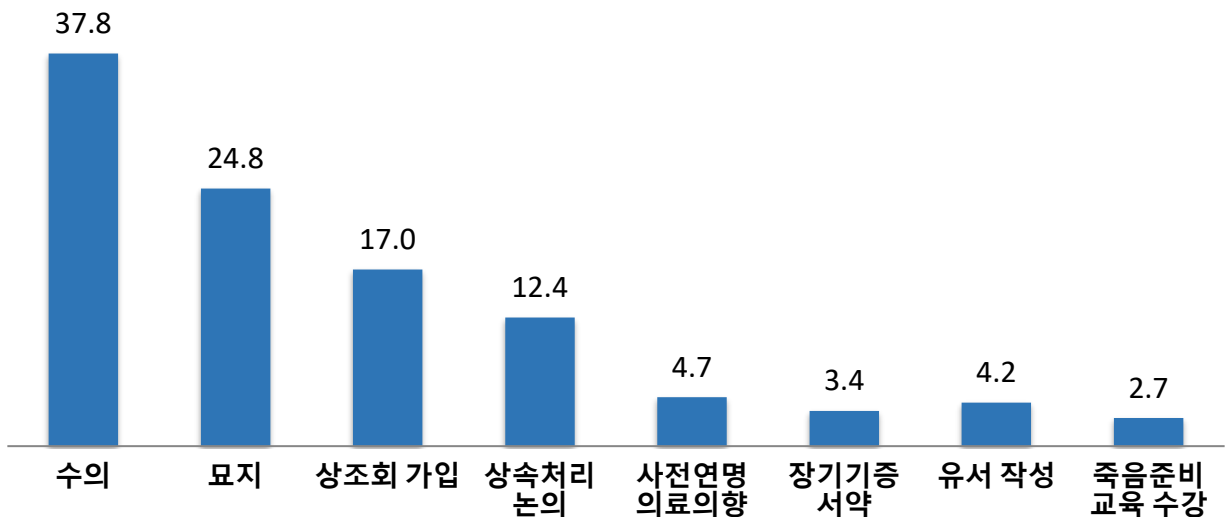


2

죽음 준비 실태

죽음을 위한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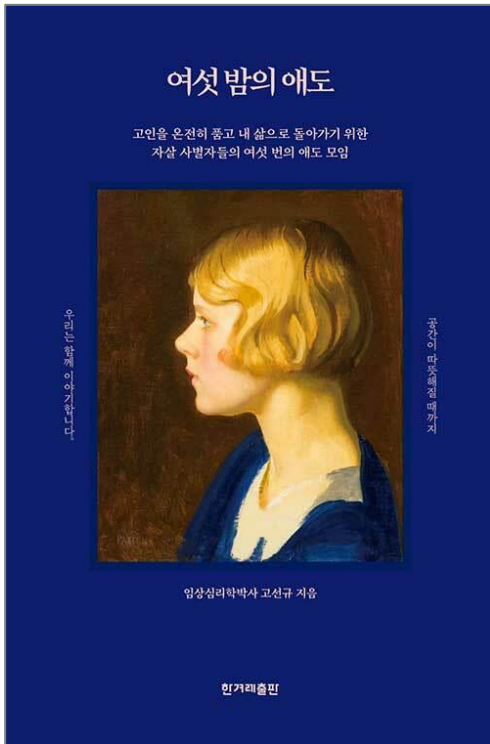
죽음 준비 실태(중복응답, %)



\*자료출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2020, 전국 만65세 이상 노인 10,073명, 보건복지부



## 애도 안내자



### 여섯 밤의 애도 고선규 | 한겨레출판

하루 평균 36.1명이 자살하는, OECD 자살률 1위의 한국. 《여섯 밤의 애도》는 자살 사별 애도상담 전문가 고선규 임상심리학박사와 자살 사별자 다섯 명이 함께 만든 ‘애도 안내서’다.

고인이 떠난 ‘그날’에 대한 이야기부터 장례식 날에 대한 회고, 타인에게 죽음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죽음의 이유를 찾는 추적자의 심정과 유서, 유품,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 디지털 세상에 남아 있는 고인의 흔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온전한 추모란 무엇인지 등등, 총 여섯 밤, 여섯 번의 모임에 걸쳐 40여 가지의 주제로 함께 애도한다. 중앙심리부검센터를 거쳐 임상심리전문가그룹 마인드웍스의 대표이자, 자살 사별 심리지원 단체 메리골드를 이끌고 있는 고선규 박사는 실제 이 책을 위해 다섯 명의 사별자를 따로 모아 상담과 모임을 진행했다.

1년여 간의 추가 연구와 수집을 병행하며 공들여 집필했다.

《여섯 밤의 애도》는 그간 보아왔던 자조모임(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얻는 모임) 수기집이나 사별자 개개인의 에세이와는 많이 다르다. 자살 사별자들이 터놓은 생생한 ‘증언’들을 단순히 수기의 형태로 내보이는 데서 더욱 발전시켜, 임상심리학자가 직접 ‘증언을 추출’하고, ‘해석’해 ‘숨은 의미’를 발굴하며, 온전한 애도를 위한 ‘상담과 조언,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실제 경험’과 ‘전문가의 견해’가 300쪽에 걸쳐 무척 조화롭고도 탄탄하게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는 물론, 자살유가족을 지원하는 각종 모임, 단체에서는 자조모임을 지지하고 권장한다. 그러나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질문들, 주제로 모임을 꾸려나가야 하는지’ ‘전문가의 도움과 개입, 해석은 어떻게 얼마나 이뤄져야 바람직한지’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

《여섯 밤의 애도》는 자살 사별자들을 위한 최초의 ‘애도 안내서’로서, 그간 전 세계 어디서도 듣거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다. 미국에서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한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에 맞춰, 이런 기념비적인 시도가 한국에서 있었다는 것은, 치솟는 자살률에 대한 한국인들의 애통과 고민, 염려를 반증한 결과인 것 같아 더욱 의미심장하다. 오늘날 자살 사별의 ‘실제적 증언자’로서 참여한 다섯 명의 애도자와 심리학자와 함께 (책의 구성대로) ‘여섯 밤’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지치고 무너진 독자들은 어느덧 다시 내 삶으로, 사람들 속으로 발 디딜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 [마음치유 프로그램] 상실에서 삶으로

인생에서 죽음과 상실을 피할 수 없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애도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삶의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애도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픈 기억과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며 스스로 그리고 함께 우리의 삶을 다독이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애도 작업에 관심 있으신 조합원분들을 초대합니다.

### ■ 개요

- 교육내용: 상실을 나누고 애도하기
- 대상: 조합원중 장례를 치른 분. 이별이나 상실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고 싶은 분. 애도를 준비하고 싶은 분.
- 일정: 2023년 2월 8일(수)/ 2월 15일(수) 오후4~6시(총 2강)
-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교육 정원: 15명 이내 (선착순 마감)
- 참가 비용: 조합원 무료, 비조합원 만원
- 신청 링크: <https://forms.gle/ArCNfzTA6kzwjcvj7>
- 문의: 02)722-9517/ 720-9517(오전10시~ 오후5시)

### ■ 프로그램

주제	내용	강의 날짜
제1강 기억과 감정 만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들어가는 명상</li> <li>- 애도에 대하여 : 간략한 소개</li> <li>- 나의 애도 이슈: 참여동기와 경험 나누기</li> <li>- 희로애락 이야기: 고인과의 관계와 감정, 그리운 것과 그리지 않은 것</li> <li>- 짧은 명상: 신체화 감각 다루기</li> </ul>	2월 8일(수) 오후 4시~6시
제2강 감정 돌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 여는 명상</li> <li>- 감정에 대하여: 간략한 소개</li> <li>- 의식의 공간 경험하기 :애도 감정을 만나고 흐름에 맡기기</li> <li>- 새로운 관계 발견하기: 편지 쓰기, ‘고인과 나’ 다시 소개하기</li> <li>- 짧은 명상: 마무리</li> </ul>	2월 15일(수) 오후 4시~6시

### ■ 강사소개

김은자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공부했고 생명과학 관련 연구소에서 일했다. 10대때 가족들을 잃으면서 겪은 상실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공부 중 가족세우기 전문과정 중 촉진자 교육과정 및 개인세션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함께하는 애도 작업을 시작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와 ‘자연에 대한 존중’ 등을 번역했다.



## 채비장서비스 광고 3종 제작



채비장례서비스 지면광고용 3종을 제작했습니다.

추모장례 에피소드로 장례의 본질 상기, 상표계의 정신을 담은 협동조합 강조, 약속과 신뢰의 상조서비스 컨셉으로 각각 제작했습니다.

잡지 지면광고 및 상품서비스 홍보페이지, 사회적경제연대진영 포스터 등 다양하게 사용할 계획이며, 조합원분들께서도 주위에 홍보 부탁드립니다

## 〈보기 및 다운로드〉

## 2022년 12월

이영민 조합원 모친상  
이창근 조합원 부친상  
박준기 조합원 부친상  
김해용 조합원 장인상  
최경순 조합원 모친상

이승재 조합원 부친상  
이인희 조합원 고모상  
이미영 조합원 시부상  
김정희 조합원 모친상  
송창석 조합원 장인상

최란 조합원 모친상  
윤용호 조합원 모친상  
권태영 조합원 삼촌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김현희 조합원 모친상

## 2022년 11월

정규호 조합원 부친상  
곽영권 조합원 모친상  
최은선 조합원 부친상  
양광용 조합원 모친상  
김영훈 조합원 모친상  
왕영술 조합원 지인상  
정영훈 조합원 모친상

권대영 조합원 모친상  
오현재 조합원 모친상  
방대수 조합원 친척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정은주 조합원 시부상  
정명희 조합원 모친상  
김의순 조합원 본인상

권종택 조합원 장인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장재필 조합원 모친상  
최남주 조합원 시부상  
김동후 조합원 부친상  
차성호 조합원 지인상  
장양미 조합원 부친상

## 2022년 10월

윤형근 조합원 빙모상  
조동희 조합원 부친상  
박종서 조합원 모친상  
서화경 조합원 시모상  
허상채 조합원 모친상  
이창환 조합원 지인상

황원섭 조합원 부친상  
김경희 조합원 모친상  
이순식 조합원 부친상  
윤석위 조합원 지인상  
황현실 조합원 배우자상  
이현철 조합원 부친상

박상일 조합원 모친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김유진 조합원 부친상  
이청순 조합원 배우자상  
박은진 조합원 시부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KGK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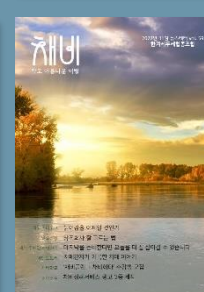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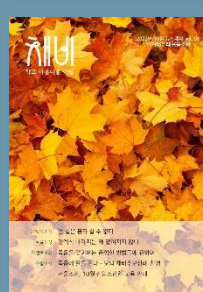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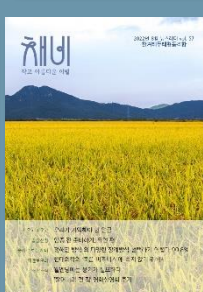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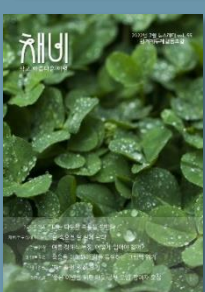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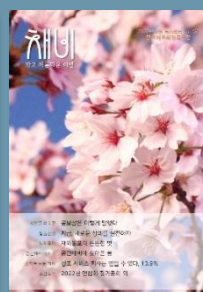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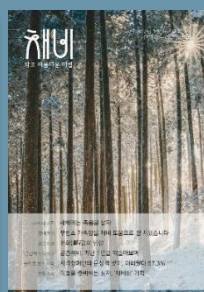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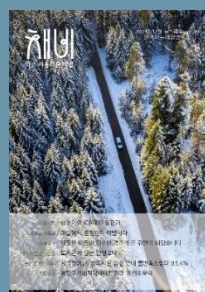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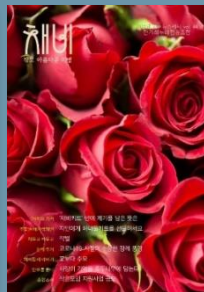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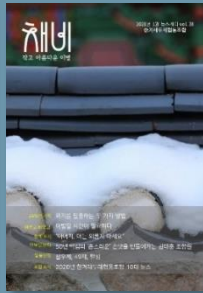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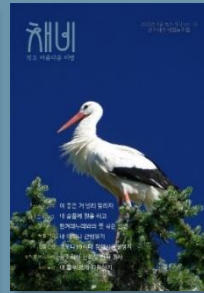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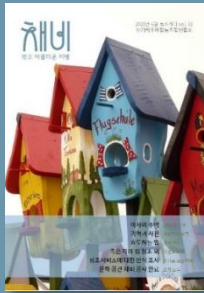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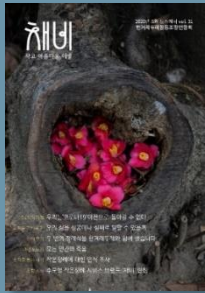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http://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